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 ‘생태문화지수 · 지표 개발’ 용역

2021. 12. 10.

순천문화도시센터 ·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 29만 순천시민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

---

# 제 출 문

순천문화도시센터장 귀하

이 보고서를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

2021. 12. 10.

용역기관명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인철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연 구 원	정명옥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시민연구원	
김정은	이야기현상소
김학수	(사)순천만생태관광협의회
김현주	우리마을교육연구소
남창우	순천로컬푸드(주)
박설희	별스런협동조합
안영선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안정아	순천환경운동연합
양지현	별스런협동조합
양진아	유익한상점
이민혜	유익한상점
이애재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이유나	별스런협동조합
이태경	순천문화도시센터
임이경	순천YMCA
조봉숙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허경희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목 차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p
- 2) 연구내용 3p
- 3) 연구방법 4p

### 2. 생태문화의 이해

- 1) 순천형 생태문화의 개념과 문화도시 5p
- 2) 생태문화지표 11p

### 3. 생태문화지표 방향성 수립

- 1)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 워크숍 12p
  - 가. 시민 워크숍 설계 13p
  - 나. 모듬토의 공통질문과 결과 14p
- 2) 생태문화의 구성요소 도출 28p

### 4. 생태문화지표 개발

- 1) 생태문화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연구원 활동 32p
- 2) 순천형 생태문화지표 측정 설문지 프로토타입 개발 p40

### 5. 생태문화지표 적용 및 조사결과

- 1) 조사개요 46p
- 2) 조사결과 46p

참고문헌 59p

### 부록

순천형 생태문화지표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지 61p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화는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공유되고 학습되며, 진화해 왔다. 인간은 자연과 끊임없는 창조적인 대화 속에서 삶을 이어갔고, 문화는 주변 자연환경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수많은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낳았고, 고유한 풍습과 지식, 토착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현재의 자연은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고, 도시와 국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자연은 인간을 닮았고, 인간은 자연을 닮았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라는 화두는 현 지구적 위기 인식에서 기원한다. 21세기 세계의 많은 도시는 변화와 위기 속에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생태적 전환을 역설한다. 전환의 시대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적 원죄(ecological sin)나 최재천 교수의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sus*)’ 이야기 속 핵심은 공존의 가치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적 지식을 통한 지구적 위기, 생태계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삶의 지침이나 생활양식이 없다면 사실상 헛일이다. 즉 자연생태계와 공존하는 인간의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 생태문화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현재 순천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생태이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생태도시, 생태문화도시, 3E(Ecology, Economic, Education) 등등. 순천의 생태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은 과도한 생태계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저항운동의 결과이다. ‘생태’라는 핵심어는 지역 고유의 공동체 문화로 자리매김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순천만, 조례호수공원, 도심하천 동천과 옥천, 업동저수지다.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도시의 비전으로(순천만, 조례저수지), 훼손된 자연을 복원과 도시재생의 기회로(동천과 옥천), 공존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생태문화로(업동저수지) 만든 시민력의 잠재력이 대단한 곳이 순천이다.

순천은 2021년 현재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문화도시의 예비단계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와 격차 해소에 주력함으로써 특화된 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순천만으로 대표되는 자연자원과 결합된 생태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시민으로 힘으로 지켜낸 순천만습지와 조례호수공원, 동천은 높은 순천시민의 환경인식과 참여로 일궈낸 시민력의 성과다. 순천만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이어졌고, 전국적으로 생태도시의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금은 순천에 뿌리내린 생태문화를 바탕으로 문화도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생태도시'나 '친환경도시',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발전비전이자 도시브랜드가 되고 있다. 순천시가 '문화도시 순천'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화자원을 잘 가꿔나가야 함은 물론, 거기에 우리가 있고 있거나 감춰진 것을 찾아 개발하는 관심을 더해야 한다.

순천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란,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인가? 내가 바라는 순천,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서로 묻고 답하는 시민들의 거버넌스 속에서 그 답을 만들어 가야 시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우리의 삶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라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형의 힘이다(방탄소년단 RM의 제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소감에서). 자연생태계와 공존은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연 안에서(in), 자연을 위한(for), 자연과 함께(with), 시민의 문화역량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하는 과정과 규칙,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본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용역은 다음과 같이 필요성과 목적을 정리할 수 있다.

- 시민참여형 생태문화지표 항목 개발을 통한 시민 일상생활 속으로의 생태

문화 가치 확산

- 지역내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지표 항목 개발과 환류를 통한 생태문화지표 기반 마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자료 항목 개발로 대한민국 생태문화 선도

따라서 본 용역에서는 시민의 참여로 순천형 생태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여 생태문화도시의 상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성과 전환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생태문화 진단의 수단으로서 지표항목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순천시민의 삶도 생태적인가? 묻고, 일상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생태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

첫째, 생태문화지표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본 사업의 핵심실행그룹으로 활동한다. 연구네트워크는 지역내 단체들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며, 시민연구원을 모집하여 진행한다.

둘째, 생태문화지표를 개발한다. 생태문화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연구원 운영과 활동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한 생태문화지표 항목 초안을 개발한다. 개발된 지표는 프로토타입으로서 <문화생활 실험실>, <이야기정원 플랫폼> 등 문화도시 예비사업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상황에 시범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생태문화지표를 시범적용한다. 생태문화지표의 프로토타입을 시범적용하고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내용을 보완한다.

###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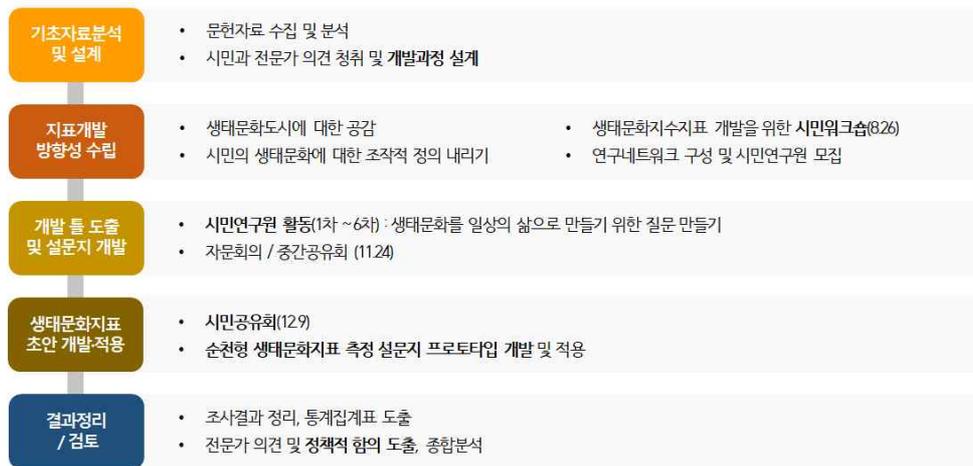
순천형 생태문화지표 개발의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기초자료분석 및 설계, 지표개발 방향성 수립, 개발틀 도출 및 설문지 개발, 생태문화지표 초안 개발 및 적용, 결과정리 순으로 이뤄진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생태문화도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도시에 적용 여부를 고찰한다.

둘째,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 워크숍을 통해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시민 스스로 내린 생태문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유형화하고 생태문화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셋째, 시민연구원 활동 과정 속에서 시민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생태문화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여 지표를 개발한다. 시민연구원 활동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토론과 분석결과 공유, 발제 등의 과정으로 이뤄지며, 시민연구원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순천형 생태문화지표 측정 설문지 프로토타입을 완성한다.

넷째, 생태문화지표 측정 도구를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그림 1> 순천형 생태문화지표 개발과정

## 2. 생태문화의 이해

### 1) 순천형 생태문화의 개념과 문화도시

서양에서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colore)에서 유래했다. 즉,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문화라는 말은 그렇게 넓은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 문화는 역사적 시대, 사회 집단,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정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엄청나게 광범위한 인간적 산물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으로 의식을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이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서도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유사하게 정의한다. 따라서 문화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상호 전달, 계승, 공유되며 생성되고 소멸되는 현상이다.

문화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며 우리는 이 틀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위와 방식을 결정한다. 누구나 이미 자리 잡은 문화 속에서 양육되기 때문에 문화라는 사고의 틀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은 너무나 당연하여 그에 대한 의문을 갖기조차 어려운 사고와 행동의 규범이 된다. 따라서 문화란 주어진 환경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들의 생활지혜이며, 삶의 적용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행위적 측면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문화라는 말도 그렇지만 생태문화도 역시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순천형 생태문화도시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시민들의 서사와 일상의 삶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인지 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문화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말 할 수 있다.

생태문화도시,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표현이다. 생태는 있는 그대로의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관계가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것이라면, 도시는 인간의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를 의미한다. 또한 문화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생활양식의 총체 즉, 인간이 만들어낸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양립하기 쉽지 않은 어쩌면 반대라고도 생각되는 생태와 도시라는 개념에 문화라는 단어가 끼어들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표현이다.

생태문화도시를 정의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생태도시와 문화도시를 나란히 병렬적·나열적으로 제시하여 둘의 교집합 내지는 합집합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생태도시와 문화도시의 비전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설정하는 많은 지자체의 발전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관점은 생태(환경)와 문화의 주제를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생태도시와 문화도시의 비전을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기에 생태·문화도시의 실현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된다.

결국 생태, 문화, 도시 이 세 단어들을 각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사고하고 탐구하는 것이 생태문화도시의 개념을 정의하는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생태도시를 사회적 체계가 하나의 문화, 즉 생활양식(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간주하면, 생태문화를 ‘생태적 문화(ecological culture)’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생태문화는 생태교육과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지만, M.K. Gandhi는 생태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범주화하여 개인

적 생태문화·물질적 생태문화·지적 생태문화로 나누어 설명한다. Gandhi의 개념은 생태문화의 물질적·비물질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 개념을 활용하면 생태적인 의식, 가치, 기술, 사회제도 등이 조화를 이룬 도시, 생태적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를 생태문화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 등(2008)은 생태문화도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환경·문화·지역(공간)의 세가지 축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영역은 도시의 환경성과 문화성, 사회성을 의미한다. 환경성(생태성)은 생태문화도시의 전제조건(제 1가치)이며, 문화성은 환경성에 조응하는 문화성을 의미한다. 즉, 생태적 문화경관(문화시설)과 그 경관에서 수행되는 생태적 문화활동, 문화운동, 문화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생태성과 문화성이 도시 공간상에서 사회적 관계와 결합되어 지속성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즉, 지역환경 거버넌스가 이에 해당된다. 생태문화도시는 위 세가지 가치의 합집합 내지는 교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BTS의 RM은 문화를 두고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문화의 결속력 속에서 사람다워진다” 라고 말한다. 아름답고 재미있고 힘을 지닌 문화, 문화도시는 문화가 갖는 힘들이 펼쳐질 미래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구현되는 도시다.

초기 문화도시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문화와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본다. 끊임없이 생물과 환경 사이에서 진화하고 그 곳에 맞는 생물들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처럼 문화도시도 이러한 진화의 이행경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 분권, 지역문화의 다양성 등의 문화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서로의 생각을 듣고 판단하는 과정, 지역별로 사회와 환경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원칙들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본 개념을 토대로 순천형 생태문화도시는 우리 순천시민이 스스로 정

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도시는 어떠한가?” 라는 생각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생태는 야생 또는 자연과 동의어로 일반적으로 취급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영역의 개념이다. 생물과 환경의 관계성이 중요한 요소인 생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사는 공존의 관계로 진화한 자연의 원리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연어 하나 키우는데 온 유역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말로 응용 가능한 것처럼 자연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생태문화도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특정한 것이 아닌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생태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양식으로 정착화된다면 생태가 바로 문화가 되는 것이다.

생태와 문화는 오랫동안 연결되어왔다. 우리가 보는 자연의 풍경은 지질변화 뿐 아니라 전쟁, 농경 등의 영향으로 만들어져왔으며 마을별로 지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은 자연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다. 자연을 배경으로 우수한 세계관과 삶의 양식을 만들었고 이러한 것이 지역별로 고유한 토착적인 문화를 만들어준 것이다.

도시는 자연환경 및 순치환경(논과 밭 등)의 기생충이다. 도시는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공기를 정화하지 않으며,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화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도시는 본질적으로 반(反) 생태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는 자연처럼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조정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지지해주지 않는다. 도시의 지속을 위해 자연과 상리기생(相利寄生)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고자 만들어진 것이 생태도시이다.

2018년 순천에 관한 장기비전 수립 시 ‘순천은 무엇인가’ 하고 시민에게 물었을 때 정원, 생태도시가 나왔다. 과연 이것은 순천시가 생태를 브랜드의 핵심

으로 내세우고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 순천이 생태·정원도시로 도시를 알렸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시민이 정원도시, 생태도시로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는 동천의 정화, 순천만의 보전, 조례저수지를 지켜낸 시민운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추론이다.

똥천으로 불리던 동천이 20여년 동안의 노력을 거쳐 2급수 수준의 하천이 된 점,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순천만을 기회로 만들어 순천의 미래비전으로 바꾼 시민의 힘, 그리고 조례저수지 까지 이어진 시민운동을 통해 우리는 “참여하면 바뀐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을 바꾸려는 이러한 시민운동과 거버넌스 과정 속에서 참여 민주주의와 문화적 과정을 학습하는 등 시민도 함께 자율적인 시민으로 행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왔다. 어렵고 지난한 일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협치와 공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훈련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과정 속에서 자율적인 시민력이 등장하고 성장하였다.

순천형 생태문화도시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시민의 힘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자연 따라 하기가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자연이 주는 혜택, 자연이 가지고 있는 교훈적인 부분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줄지 모른다.

□ 자연 따라 하기 :

자연은 햇빛으로 움직인다.  
자연은 필요한 에너지만 사용한다.  
자연은 기능에 형태를 맞춘다.  
자연은 모든 것을 재활용 한다.  
자연은 협동에 보상해준다.  
자연은 다양성에 의존한다.  
자연은 지역 전문가를 요구한다.  
자연은 내부로부터 과잉을 억제한다.  
자연은 한계에서 힘을 얻는다.

자연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항목을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순천에서의 삶은 그러한지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생태와 문화가 결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은 사람을 닮고 사람은 자연을 닮아야 한다.

생태문화도시는 인간과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도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이 그러하듯이 생태적 원리로 작동되고 다양성과 관계에 의존한 협치와 공유, 느림의 속도를 인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문화도시는**

- ✓ 인간과 생태(자연), 문화가 융합된 도시
- ✓ 물리적으로 조성된 생태도시에 문화의 외피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생태도시의 가치와 철학, 내용, 과정이 일상의 삶에서 생활양식과 지역 고유의 공동체로 자리매김되고 성장, 진화하는 도시
- ✓ 자연이 그러하듯이 생태적 원리로 작동되고, 다양성과 관계에 의존하는 협치와 공유, 느린 속도를 인정하는 도시

## 2) 생태문화지표

지표(Indicators)란 통계보다 상위개념으로 구체적인 통계수치 및 통계자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형태의 자료들을 의미한다. 즉 지표의 외형적인 형태는 통계와 같으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성격과 사회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 보고하여 주는 기술적 성격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지표란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적 지향과 가치에 비추어 각종 문화현황과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수요의 흐름과 동향 등을 판별하기 위한 항목, 혹은 코드의 체계적인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수는 특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데이터나 지표를 종합해 하나의 정량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수는 지표의 상위개념으로 여러 지표가 모여 표준화, 정량화됨으로써 하나의 지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수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되며, 지표는 특정분야나 부문 또는 측면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되거나 여러 개의 지표가 하나의 지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생태문화지표는 생태문화도시 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통계자료이며, 생태문화도시의 발전현황과 변화추이의 파악을 위한 측정도구이다. 추상적인 개념인 생태문화도시의 구축과 발전정도를 객관적,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기본 틀이자, 보다 효과적인 생태문화 정책에 대한 방향정립의 토대가 된다. 순천형 생태문화지표개발은 시민과 함께 생태문화의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이며, 일상 속으로 생태문화 가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생태문화는 생태도시의 가치와 철학, 과정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양식으로 정착되는 것이다. 생태도시가 품고 있는, 제공하는 환경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사용자들의 일련의 행동양식, 가치, 관념, 공간 등에서 생태문화는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생태문화지표 방향성 수립

#### 1)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 워크숍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 워크숍을 통해 생태문화도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생태문화실천 사례를 통해 생태문화가 무엇인지 공감하는 과정을 가졌다<그림 2>. 생태문화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과 우리 삶 속에 발견되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탐구하였다. 그렇게 시민 스스로 내린 생태문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유형화하고 생태문화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다.



<그림 2>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워크숍(2021.8.26)

생태문화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과 실천사례에 대한 강연과 시민 참가자의 질의응답, 각 모둠별로 생태문화에 대한 제안과 사례 발굴, 모둠별 발표-종합토론을 통해 참여자들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둠별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우리집, 우리동네, 우리시의 생태문화사례 모음 내는 계기가 되었다.

## 가. 시민 워크숍 설계

### ○ 워크숍의 목적

-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이해
- 시민 스스로 생태문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지수·지표 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

### ○ 추진방향

-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강연과 시민 참가자의 질의응답
- 각 모둠별로 생태문화에 대한 제안과 사례 발굴
- 모둠별 발표-종합토론을 통해 참여자들 상호간 의견 수렴 기회 제공
- 생태문화에 대한 시민 연구원 모집

### ○ 워크숍 대화 결과물

- 모둠별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 우리집, 우리동네, 우리시의 생태문화사례 모음,
- 주제 관련 대화록

### ○ 시기 및 장소 : 2021년 8월 26일(목) 15시, 순천YMCA 2층

### ○ 참가자 : 40여명

- 잠재적 시민 연구원 : 생태문화관련 시민사회단체, 개인, 모임, 전문그룹 등
- 자문 전문가 : 모세환 대표(지역공동체활성센터)

○ 세부일정

---

15:00~15:30	강연1 : 순천형 생태문화의 개념과 문화도시, 김인철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강연2 : 생태문화 실천사례, 범영균 문화꿈지락 이야기현상소 대표
15:30~17:30	모듬별 토의 : 생태문화의 내용적 핵심탐구 및 공유 ▷ 질문별 자유대화 : 1) 강연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게 되었나? 2) 생태문화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상상과 제안, 탐구 1) '생태문화도시'라면 이정도는 해야(있어야)...., 2) 우리집, 우리동네, 우리시의 생태문화 사례 찾고 나누기
17:30~17:50	결과공유 및 참여자 상호 질의응답, 전문가 자문
17:50~18:00	생태문화연구그룹 시민 연구원 구성 및 폐회

---

나. 모듬토의 공통질문과 결과

- 강연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 생태문화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생태문화도시'라면 이정도는 해야(있어야) ...
- 생태문화?! 우리집, 우리동네, 우리시에 있어요! (알고 있는 것 뽑내기)

○ 강연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지속가능성 / #깨어있는 시민의식 / #토착생물의 존재적 가치 재발견 / #생태도시와 삶 / #자연과 사람의 공생, 공존 / #시민의 자발성 / #오랜된 것의 가치 / #잡초는 없다 / #생태와 문화의 어울림 / #다양성과 공존 /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 / #소통 / #자연 따라하기 / #온마을 / #생태친화적인 생활과 실천 / #인식증진 /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

- ▶ 지속가능성 담보- 박미라
  - 뉴욕하이라인 사례를 보면서 자원을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자연은 사람을 닮고, 사람은 자연을 닮는다.
  - 자연과 사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공생의 관계
- ▶ 뉴욕 하이라인 사례-김현주
  - 인위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지 않고, 철길과 그 주변 식물들 자체의 가치를 추구.
  - 순천만국가정원은 지속가능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 ▶ 시민의식-신정화
  - 우리 마을에서 우리들의 삶속에서 시민의식이 필요함.
- ▶ 하이라인 공중정원-김숙경
  - 경관 조성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철길 근처에 살고 있는 자생적인 식물로 조성한게 인상적
- ▶ 생태도시와 삶-김병희
  - 생태도시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삶과 같이 가는 것이다.
- ▶ 자연과 사람의 공생-박혜원
  - 하이라인 공중정원은 자연과 사람이 서로가 가진 가치를 존중하며,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줌.
- ▶ 양지현
  - (자발성) 생태와 도시를 잇는 문화의 힘과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는 힘이 문화 속에 있다는 점에 공감.
- ▶ 문지영
  - (자발성) 대중이 함께 지속가능성을 고민했던 하이라인파크의 사례와 자연따라하기 10계명이 깊은 인상을 남김.
- ▶ 이민혜
  - (오래된 것의 가치) 새로운 것을 세련된 것으로 곧잘 생각하는데, ‘생태문화도시를 위해 꼭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에 공감하게 됨.
- ▶ 광동민
  - (오래된 것의 가치) ‘하이라인 파크’ 를 통해 외래의 것이나 새로움에 이끌리면 서도 익숙한 것, 토착식물을 꺼려하는 우리의 조경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됨.

- ▶ 이은옥
  - (공생 공존) 생태문화도시에서는 생태와 사람이 공존 공생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함.
- ▶ 김효순
  - (공생 공존) 사람도 자연과 더불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인상적.
- ▶ 남창우
  - (공생 공존) 우리가 누리는 생태서비스의 의미를 원금과 이자에 비유한 국립생태원의 설명에 공감.
  - (공생 공존) ‘인간은 생태에 적응이 잘 된 기생충인데, 숙주를 죽이면 우리도 죽는다’ 는 비유도 인간과 생태의 관계를 잘 설명함.
- ▶ 안영선, 이소민, 이유나, 정인원, 홍승표, 유혜린, 김영옥
  - 잡초는 없다. 발상의 전환 / 생태, 문화 어울림 / 다양함의 공존 / 자연을 위한 나의 삶 ? 나를 위한 자연보호?! 철도를 그대로 / 생태문화 도시에는 (유나)가 살고 있다 / 자연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누군가에게 잡초도 이쁜 식물 / 무언가 차별점을 찾고, 새로운 점을 찾는 것→있는 그대로 Look / 당장이라도 무언가 해야한다.실제로 실천하여 주변에 알리기 /코로나로 인해 생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이 듦 / 역시 외국 / 생태문화 도시에는 (같이)산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우리 주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해야 겠다고 생각
- ▶ 김학수, 이애재, 이태경, 김상호, 임이경, 김정은, 양진아
  - 생물다양성 :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 자연 따라하기
  - 문화란 생태와 도시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
  - 공중정원 사례 중 잡초를 무조건 뽑지 않고 자연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는 것, 9년의 시간동안 진행된 “지속가능성”
- ▶ 자연과 사람의 공존\_안정아
  - 잡초도 가꾸면 근사한 화초가 되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쓸모가 있음.
- ▶ 공존\_정현주, 조봉숙
  - 천일홍인줄 알고 기른 풀을 다른분이 잡초라고 뽑아버린 사연

- 발표하신 사례에서 첼시 꼭 가보고 싶음.
- 원래 있던 곳 가꾸며 세월을 그대로 가꾸는 장소가 있어 감명 깊었음.
- ▶ 새 부리의 다양함, 연어, 온마을, 가치의 같이\_모세환
  - 다양함과 온마을이 문화도시에도 필요함.
  - 가치의 같이 필요.
- ▶ 생태친화적 생활문화로 전환\_허경희
  - 생태친화적인 실천 행동 필요.
- ▶ 오늘날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껏 몰라서 발행하는 문제\_최병광
  - 작은 노력을 얼마나 해야 눈에 보일까?(예전에는 작은 노력을 몰라서 못했을까?)
  - 하지 말라는 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이렇게 하면 됩니다~)
- ▶ 기존의 환경 및 시설을 생태친화적, 오늘 변화시키는 노력과 발상의 전환 필요  
<고가도로>\_정현주
  - 진정한 생태는 꼭 1가지가 아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친근한 시설로 만들 수 있음.
  - 관광객을 위한 정원이 아닌 생활하는 사람의 정원이고, 누구나 쉬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음.
- ▶ 문화 vs 문화적 의미\_이태호
  - 문화: 생태+문화도시, 생태문화+도시? 단순히 문화향유를 위한 도시가 아님. 개념 정의가 필요.
  - 문화적: 전시공연 필요하고 우리동네에 필요한 민원이 아닌 주민이 제일 잘 아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적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보자는 것이 문화적 방법임.

○ 생태문화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소통 / #공감 / #시민의식 / #함께 / #보존 / #NO개발 / #친환경 / #지속가능 / #자발성 / #지속성 / #공동노력 / #문제의식 / #대안연구 의지 / #실천 / #공존공생 / #검약 / #29만 브이로그 / #인싸 / #홍보 / #소통의 장 / #함께하는 것 / #비대면 / #서로를 연결해주는 MC / #열린마음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 #프리토킹 / #순천시 / #자연 / #관계 / #이해관계 / #사람 / #환경교육 / #쉬운 용어와 스토리텔링 / #돈 / #생각의 전환 / #행정의

지원 / #투명한 자원순환 / #제도 혁신 / #연결과 융합 / #생태감수성 / #참여 / #다양성 / #적정한 소비 / #법과 조례 / #경계

▶ 소통->공감->지속가능성-김병희

-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폭력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왜 필요한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에 지속가능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질 것임.

▶ 변화보다는 보존-박미라

- 개발로 인한 변화보다는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

▶ NO 개발-김현주

- 생명생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순천 전역은 생물권역 보존지역이다. 생태를 파괴하는 더 이상의 개발은 반대.

▶ 시민의식과 관용-박혜원

- 생태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어떤 변화와 삶속에서의 실천이 필요한지?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꾸준한 교육이 있어야 함.
- 길냥이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시민과 먹을 것을 주지 마라는 시민들이 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관용이 필요함.

▶ 친환경-김숙경

-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는 등의 삶의 변화가 필요함.
- 친환경적인 문화가 퍼져나가야 함.

▶ 인식-신정화

-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양지현

- 먼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의식의 전환과 행동이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 정착되는 생활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문지영

-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생적 노력이 중요함.

▶ 이민혜

- 문화가 형성되어온 과정을 생각하며, 개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모여 여럿이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지속함으로써 문화를 이루는 것이 생태문화도시라 생각함.

▶ 광동민

- 순천은 좋은 생태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의 생활로 발생하는 많은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대안을 만들고 줄이기 위한 실천이 필요함.

▶ 이은옥

-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이 중요한데, 이러한 고민과 실천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실천에 의해서 생활로 정착되어야 함.

▶ 김효순

- 공존과 공생의 마음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

▶ 남창우

-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
-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범정스님의 무소유 정신 상기하기.

▶ 안영선, 이소민, 이유나, 정인원, 홍승표, 유혜린, 김영옥

- 브이로그의 영향력은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인싸는 누구나 될 수 있고 큰 영향력도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널리 알리고 확산시켰으면 한다. 엄마들이 sns를 통해 전국노래자랑도 홍보하고 참여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나
-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이 더 필요하다
- 우리는 관심이 있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혼란스럽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확신을 가질려고 하니 중심의 뭔가가 필요하다. 사실 공유도 필요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책, 유튜브, 정보를 다양하게 접한 후 공통점을 찾는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 사람,관계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다.
- 생태문화도시라는 이미지, 느낌을 쉬운 용어와 스토리텔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으며 편하게 생각하고 접근, 활용,이용 뭐든 할 수 있다
- 돈: 앞 강의에서 뉴욕의 철도공원을 유지하는데 기부금이 98%란 말을 듣고 생태를 지키는 것도 베이스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개인이든 단체든 돈을 사용하고 기부하는 것은 결국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요

- ▶ 김학수, 이해재, 이태경, 김상호, 임이경, 김정은, 양진아
  - 생각의 전환 필요 : 나와 타인,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변화라는 상반된 입장에서의 생각
  - 시민과 지역 전문가들의 활동을 서포트 할 수 있는 행정력 필요
  - 자원이 순환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투명성
  - 직접적인 생태서비스와 다양한 혁신 제도
  - 신도심과 구도심의 연결, IT와 아날로그의 결합
  - 여유 있는 라이프 스타일
  - 무분별한 개발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상
  -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 생태적 가치, 공존\_허경희
  - 시민들의 생태문화적 감수성,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사는 삶
- ▶ 더불어 함께 자발적인 참여\_조봉숙
  -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임
- ▶ 자발적 시민참여\_안정아
  - 공터 화단에 화초를 심었을 때는 물을 주거나 관심을 갖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발작물인 고구마를 심고 고추를 심으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풀도 뽑고 물도 주기 시작함.
  - 주민들과 따라오기보다 함께하고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함.
- ▶ 상생과 상호존중(다양성 실천)\_이태호
  - 생태문화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 → 문화쪽에는 다양성임
  - 생각만 말고 꼭 실천을 해야함 → 올해는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
- ▶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지 않는 소비\_정현주
  - 용당동에 거대한 쓰레기 산이 있음. 우리 생활권 주변에 있어 놀라움.
  - 행주, 냅킨 등 1회용품을 너무 과하게 쓰는게 일상적임.
  -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지 않는 소비 중요함.
- ▶ 눈에 보여야 한다. 광주 사는 사촌동생이 와서 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함\_최병광
  - 극단적으로 가야 사람들이 인식함. 발상전환 필요
- ▶ 법, 조례 뒷받침 되어야 함\_모세환
- ▶ 모든 경계에 꽃이 핀다\_범영균
  - 생태문화도시 경계가 중요하고 그 경계에 꽃이 피어야 한다.

○ ‘생태문화도시’ 라면 이정도는 해야(있어야) ...

#시민교육 / #친환경기념품 / #친환경축제 / #자전거 전용도로 / #개발보다는 보전 / #도심 폐기물 처리장 / #마을 / #협치 / #공간과 기회 / #시민거버넌스 / #친환경생활 / #생태,문화 전문직 공무원 / #협조하는 행정 / #sns소통왕 관리자 / #행정력 / #상설공연장 / #open된 공간 /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 #들어가지 말라는 뜻말없는 공원 / #잘 정리되어 있는(할 수 있는) 쓰레기통 / #생활문화 동호회 등 서로 간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 / #각 시민들의 생활문화 콘텐츠화 / #시민을 위한 교육 / #순천형 공식 친환경 키트 / #(자연)시민의식 / #더 좋은 이웃 (공동체) / #투자 / #탄소저감 / #친환경모빌리티 / #재활용정책 / #태양에너지 / #텀블러세척기 / #경청 / #대중교통 / #채식 / #생태문화지표관련 조례 / #차없는 거리 / #녹색 도시경관 / #정책의 연속성 / #회용없는 도시 / #기부와 후원

▶ 시민교육 프로그램-신정화

- 다양한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 친환경 기념품-박혜원

- 지자체 행사, 기념품 제작할 때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고, 고쳐쓰기운동이 필요함.

▶ 푸드아트페스티벌 안돼!-김현주

- 일회성 쓰레기 대방출 축제인 푸드아트페스티벌 없어야 함.

▶ 자전거 전용도로-김현주

- 원도심 일정 구간, 하나의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야 함.

▶ 생태문화페스티벌-김병희

-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릇 용기를 가져오고
- 생태문화를 알려내고 홍보하는 순천만의 페스티벌

▶ 아파트 건설 공사 NO-박미라

- 순천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게 허가를 안 해줘야 함. 삼산이수 경관이 사라지고 있음.
- 특히 봉화산 주변 아파트 허가를 내어주시 않아야 함.

▶ 도심 폐기물처리장-김현주

- 쓰레기를 갖다 많이 배출하는 도시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어야 함. 폐기물 처리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처리 시설을 감시하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의식도 형성됨.

▶ 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이 현실에서 정책으로 반영되고, 공론화되어야 함.\_김현주

▶ 양지현

- 에너지, 쓰레기 문제 등 마을 단위 자발적 해결 노력.
- 시민주권을 위한 시민 중심의 행정.
-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여유로운 삶.

▶ 문지영

- 활동가나 단체 등 시민이 중심이 되어 행정과 협업하는 사업 추진 방식. 즉 협치.

▶ 광동민

-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문화자원을 시민들이 배우고 이해하고 보존해 갈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함.

▶ 이은옥

- 시민 주도적인 모임
- 활동가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활동가놀이터)
- 제로웨이스트 거리 (Ex. 플라스틱 없는 카페거리)
- 생태친화적 삶으로의 전환과 생활환경의 변화

▶ 김효순

- 도시의 시설·자원을 시민들이 공동관리하는 능동적 태도
- 지역 생태자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를 널리 알리는 노력

▶ 남창우

- 백년지대계를 위해, 도시 전체 어딜 가더라도 생태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생태교실인 순천,
- 그리고 이를 실제 교육에 활용. “연어 하나 키우는데에도 온 유역이 필요하다”

▶ 정인원; 투자- 시간이든 금전이든 개인이든 공적이든 노력을 해야 시민의식이 생기고 이를 수 있다. 쓰레기 처리를 보더라도

▶ 홍승표; 행정력- 행정이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먼저 제안하고 실천하려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였는데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틀 문제라고 본다. 열심히 하는 시민들 의지를 꺾는다

- ▶ 김영옥; 전문적인 공무원- 필요한 부서에서는 6개월이나 1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간이 필요하며, 전문공무원도 뽑아서 배치를 해야 한다. 문화, 생태 전문직은 순천에 몇 명일까?
- ▶ 이유나; open 상설 공연장- 대관보다는 자유롭고, 제약도 없으며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연장이 필요하다. 자유를 찾아 활동가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생겼다. 동네에 남아 활동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생활문화 동호회를 통해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구축도 해주고 연령대에 맞게 설계도 해주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 ▶ 유혜린; 시민의 질문에 어떤 것이라도 답해주는 sns관리자가 있었으면 한다. 시정과 생활 생태문화 뭐든 물어 보고 답한다면 순천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겠다.
  - 순천형 공식 친환경 키트 만들기 : 갈대 빨대, 대나무 칫솔, 갈대비누, 수세미 등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친환경 키트를 만들면 홍보도 되고 자부심도 생기고 좋겠다. 예전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개발하고 공유 할 수 있게 지원해서 제작 되었으면 한다.
- ▶ 이소민; 생태나 문화를 학교교육 안에서 배울 수 있게 해주라.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에서도 정규화하여 배울 수 있어야 더 많이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는 기회가 없었지만 후배들에게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교육의 정규화!!!
- ▶ 김학수, 이애재, 이태경, 김상호, 임이경, 김정은, 양진아
  - 탄소저감 실천 정책 마련
  -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가 좋은 도시
  - 로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문화트렌드 지원
  - 분리수거 및 재활용 효율에 대한 정책적 논의 필요
  - 건물 에너지 등급 시행 및 탄소세 부여
  - 신규 건축물 및 기업(관공서)에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장려
  - 생태문화 실천 공간 확산 (텀블러 세척기 읍면동별 설치)
  - 일상 속 생태문화 인식 확산 : 하루 세 번 경청하기, 월 1회 대중교통 이용 : 기관·기업 모범 실천하기, 학교 급식 주 1회 채식 운영, 도로 위 노란선 주변에 주차 대신 꽃 심기

▶ 법 / 조례\_이태호

- 생태문화지수 부분에서 법조례 필요
- 생태도시 조례 7월 제정되었는데, 행정협의체 발족이 조금 빨리 되었으면 조례에 문화부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 차후 조례개정 시 문화부분 담았으면 함.
- 시민이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문화도시여야 함.

▶ 자동차 없는 거리\_범영균, 허경희

- 차 없는 거리(90년대 대학로 만들기)
- 그린네트워크, 그린축이 있어야 생태문화도시이고 사람의 걸음이 시작
- 걸어다니는 불편함이 당연시 되는 문화도시여야함.

▶ 산 정상에서 보면(와~ 다르구나! 녹색이구나! 예쁘구나!)\_최병광

-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 누가와도 생태를 떠오르면 생태스럽다 라고 보이면 좋겠음.

▶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 도시\_조봉숙

- 실적위주의 이벤트적인 정책 하지 말자.

▶ 1회용품 안쓰는 시민이 되어야 함.\_허경희

▶ 간선도로 쓰레기 없어야..\_정현주

- 생태도시에 걸 맞는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새로운 생태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도시 및 지역을 어떻게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시민의식)\_안정아

▶ 인근도시(여수, 광양)와 연계해서 함께가는 도시가 생태문화도시임\_모세환, 허경희

- 기후, 생태 등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주변과 유기적인 면이 있음.

▶ 생태문화와 관련한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시민이 많은 도시\_모세환

○ 생태문화?! 우리집, 우리동네, 우리시에 있어요! (알고 있는 것 뽑내기)

#용기내는 상점 / #플라스틱 방앗간 / # 페트병 수거함 / #길고양이 급식소 / #활동가 / # 플로깅 / #친환경생활 실천하는 시민 / #생태자원 / #공동체 / #업동저수지 두꺼비 보호활동 / #천연수세미, 고체비누 / #기적의 도서관 / #웰빙도로 / #생태적 삶을 실천한 농민 / #빨대혁명 / #업사이클링 클래스 / #용기내는 청년 / #네프론 / #팻 캐스트 / #텀블러 세척기(NO 플라스틱) / #깨끗한 거리 대학로 / #좋은 이웃(몸과 마음이 건강한) / #환경단체#N

잡리(능력이 많은) / #주말이 없는 삶 / #먼저 실천 행동하기 / #도서관 / #정원 / #밀크로드 / #노플라스틱 카페 / #또라이 / #공동체의 중심 공간, 마을회관 / #노거수 / #곶대 / #일관된 생태도시 정책

▶ 용기내는 상점-김숙경

- 순천대학교 대학로에는 ‘용기’ 를 가지고 와서 ‘용기’ 있게 음식물을 담아가는 상점이 있어요.

▶ 플라스틱 뚜껑 모아요-김숙경

-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 재활용하는 곳이 있어요. 별스런협동조합

▶ 플라스틱 방앗간-김병희

- 플라스틱 방앗간이 있어요. 문화도시센터

▶ 페트병 수거함-박혜원

- 순천만국가정원, 업사이클링센터에는 페트병 수거함이 있어요. 2,000포인트가 쌓여요.

▶ 길고양이 급식소-박혜원

- 공존을 실천하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어요.

▶ 사람들이 있어요-김현주, 박미라, 김숙경

- 순천만습지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 생태문화활동가들이 있어요.
- 동천, 조례호수공원, 와온해변에서 플로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비닐포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희망사항 : 순천에는 시민활동가, 청년협동조합 활동가들에게 ‘기본소득’ 을 지원해요^^

▶ 양지현

-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활동가들.
- 풍부한 생태자원.
- 아름다운 공동체.

▶ 문지영

- 순천대 대학로에 있는 용기내는 상점(별스런 협동조합 참여).
- 두꺼비 로드킬 방지 프로젝트 “우리 두꺼비 만나러 가요”

- 플라스틱 방앗간 - 향후 플라스틱 조형물 전시 예정.

▶ **곽동민**

- 훌륭한 생태자원이 많음.

▶ **이은옥**

- 가족들이 함께 고체주방비누나 천연수세미를 사용하며 No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가정. (Ex. 이은옥님 가정)

▶ **김효순**

- 기적의 도서관, 웰빙도로 등.

▶ **남창우**

- 생태적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

- 故 한원식 선생 :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승주의 외딴 집에서 노부부가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농기구만으로 1,500명의 목정밭을 일구어 자급자족을 위한 농사를 지었고, 먹거리는 돈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수확한 것은 자급 식량 또는 물물교환으로 소비.

- 박귀심 선생 : 화장지를 쓰지 않는 생태화장실을 만들어 퇴비를 생산해서 쓰고, 하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비누나 샴푸를 쓰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며, 집안에 흐르는 계곡물을 이용해 퇴적토를 걷어 퇴비로 활용하는 등 농사만이 아니라 삶 자체를 생태적으로 살아가고 계심.(승주 거주)

▶ **안영선, 이소민, 이유나, 정인원, 홍승표, 유혜린, 김영옥**

- 상점은 순천대 대학로, 세척기는 YMCA. 네프론은 업사이클링 센타와 국가정원 동문, 방앗간은 생길예정이며 순천 팻캐스트는 하루에 하나 업로드된답니다.

- 빨대혁명- 새로운 재료로 만든 빨대들을 각자가 써보고 후기를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혁명정신” 이라는 앱. 청년들이 많이 이용한답니다. 빨대 하나에서 출발하는 생태에 대한 관심인듯 합니다.

-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주말도 없이 바빠 보내며 열정적으로 사는 활동가가 우리 순천에는 많아요. 그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순천의 자랑입니다!!!

- 시간이 없어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청년들과 시간을 좀 더 내서 자리를 마련해 보아요.

▶ **김학수, 이해재, 이태경, 김상호, 임이경, 김정은, 양진아**

- 도서관이 많다

- 새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정원이 많음
- 우유팩 재활용 프로젝트 ‘밀크로드’ 가 있음
- 노플라스틱 카페가 있고,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 포라이\_이태호

-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과 꼬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음.
-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문화시민의 수준을 높임.
- 거버넌스가 되는 각 마을의 포라이가 있음.
- 센터 직원들이 모두 24시간 미친 사람처럼(포라이처럼) 행동하는 직원임.

▶ 아버지 세대의 꿈, 정원 가꾸기\_최병광

- 아버지 세대는 어디에가도 마을가꾸기 정원가꾸기를 함.(꽃, 나무)

▶ 마을회관에 잘 모여요\_허경희

- 코로나19 전이지만 이사오거나, 생일이거나, 일당이 생기거나 등등의 사소한 경조사에도 같이 밥을 먹고 모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동네문화.

▶ 정자나무(노거수) 있어요\_허경희

- 보호수는 아니지만 오랜기간 동안 우리 마을과 함께한 노거수가 있음.
- 거기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고, 쉼터가 되고, 더위도 피하는 공간이 됨.

▶ 끈대\_범영균

- 뿌리깊은 박물관 좋아하고 어릴때부터 봐왔던 분들
- 은사님인 광재구 선생님, 김승욱 작가님, 정채봉 작가님 등 좋아하는 선생님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끈대가 순천에 계셔서 좋았고 순천에서 살게 된 이유가 되었음.

▶ 녹색성장, 창조경제, 문화도시\_모세환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때 다른 지자체는 4대강으로 상을 받았지만 순천은 갈대밭으로 받음.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때에도 순천은 국가정원 일자리와 관련하여 상을 받음.
- 그럼 문화도시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체인 정부임.
-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있는 문화다는 문체부의 슬로건임. 많은 포라이들이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시민성으로 상 받아야 함. 생태문화는 20년 30년 후를 보고 해야함.

## 2) 생태문화의 구성요소 도출

시민워크숍 모듈별 토론을 통해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시민 스스로 내린 생태문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유형화하고 생태문화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다. 생태문화는 생태도시의 가치와 철학, 과정이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며, 도시가 품고 있는 자연환경, 인공환경, 순치환경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시민들의 일련의 행동양식, 가치, 관념, 공간 등에서 생태문화는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생태문화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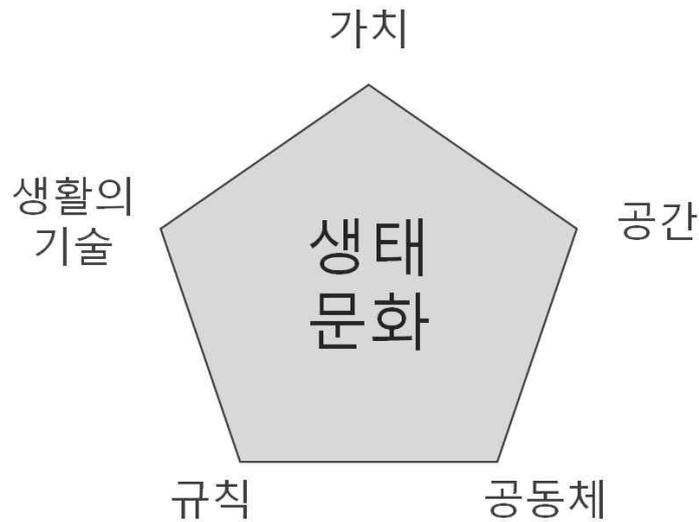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 / 개발보다는 보전 / 교육, 인식의 변화 / 타생명체에 대한 관용 /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 / 생활문화 /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공동노력 /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 / 생태적인 삶 / 공존과 공생 / 불편함을 감수하는 검약의 삶 / 소통 / 홍보와 공유 / 함께하는 것 / 시민의식 / 자연과 인간의 관계 / 환경교육 / 쉬운 용어사용과 스토리텔링 / 기부문화 / 생각의 전환 / 행정지원과 거버넌스 /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 / 이질적인 요소간의 융합 / 시민의식 / 생태문화 감수성 / 공존의 삶 / 시민의 자발적 참여 / 적절한 소비 / 법과 조례의 뒷받침 / 경계에 꽃이 피어야

### ○ 이미 우리 삶에 생태문화가 있다

용기내는 상점 / 플라스틱 방앗간 / 페티병 수거함(국가정원내 네프론) / 길고양이 급식소 / 생태문화 소양을 갖춘 사람들 : 순천만을 지킨 사람들, 생태문화활동가, 플로깅족, 비닐포장 거부하는 사람들 / 풍부한 생태자원 / 두꺼비 로드킬 방지 활동 / NO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가정 / 기적의 도서관, 도서관의 도시 / 생태적 삶을 실천한 농민 : 고 한원식 선생, 박귀심 선생 / 빨대혁명(혁명정신이라는 앱) / 환경단체 / 정원이 많다 / 우유팩 재활용 프로젝트 '밀크로드' / 노플라스틱 카페 / 각 마을의 '뜨라이' / 마을가꾸기와 정원, 텃밭을 가꾸는 아버지 세대 / 공동체가 살아있는 동네문화 : 마을회관 / 정자나무(노거수) / 뿌리깊은 박물관 / 문학작가 : 곽재구, 김승옥, 정채봉 등 /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순천

○ 생태문화도시라면 이정도는 해야

다양한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 / 친환경 기념품 / 쓰레기 없는 푸드아트페스티벌 / 차선 하나가  
자전거도로 / 대표 생태문화페스티벌 보유 / 아파트 건설 더 이상은 없다 선언 / 도심 속  
폐기물처리장 / 마을 단위의 에너지와 쓰레기 문제 해결 / 시민중심의 행정 / 여유로운 삶 /  
협치 / 생태문화를 경험하는 공간과 기회가 많다 / 활동가들의 공간 / 제로웨이스트 거리 /  
도시시설의 공동체 관리 / 도심 속 곳곳이 생태교실 / 생태문화 전문직 공무원 / sns소통왕  
관리자 / 누구나 이용가능한 상설공연장 문화공유공간 / 들어가지 말라는 뜻말이 없는 공원 /  
누구나 쉽게 저절로 정리하게 만드는 쓰레기통 / 생활문화동호인들의 거버넌스 / 생활문화  
콘텐츠화 / 순천형 친환경 키트 / 탄소저감실천 정책, 탄소세 부여 /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가  
좋은 도시 / 건물 에너지 등급제 시행, 신규건축물 태양광에너지 설치 장려 / 로컬문화  
지원정책 /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생활환경 정책 구축 / 생태문화 실천공간 확산(텀블러  
세척기 읍면동 설치) / 일상 속 생태문화: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하기, 채식, 꽃심기 /  
생태문화지수가 조례(생태도시조례)에 들어가기 / 차없는 거리 / 그린네트워크, 그린축 /  
걷기좋은도시 / 정책의 연속성 / 1회용품 안쓰는 시민 / 생태문화적 소양을 갖춘 시민 /  
생태문화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 / 인근도시와 협력하는 도시 /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시민이 많은 도시



<그림 3> 생태문화의 구성요소 : 가치, 공간, 공동체, 규칙, 생활의 기술

시민 워크숍을 통해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도출한 생태문화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5가지이며, 특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3>.

**가치** : 인간의 사회생활은 행위의 의미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하는 관점에 따라 행위는 달라진다. 이를 제공하는 영역이 ‘가치’를 구성한다. 예) 순천다운 생태적·문화적 가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행동 및 프로그램, 시민운동, 공존·공생의 문화.

**공간** : 생태문화를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물질적 생산물이 존재하거나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공간’에 포함된다. 예) 생태적인 환경이나 장소, 도시경관을 변화시키는 거점(상점이나 가게, 정원, 골목길 등), 생태적 명소, 생태와 환경의 가치를 구현한 도시계획(차없는 거리, 자전거도로, 도시숲 등)

**공동체** : 공동체는 함께 잘 살아가는 관계로서 삶의 형식으로 개인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각종의 요구를 주민과 공동으로 실현하는 집단이고, 공동체에서는 가치, 자원, 필요, 정서,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생태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을, 폐쇄성이 아닌 개방성을, 공유와 상보적인 관계를 연대적 삶의 형식인 공동체에 어떻게 내용적으로 담아내고 있는지 그 사회의 구성원과 집단,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공동체’를 구성한다. 예) 생태문화의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는 모임이나 단체, 사람, 구성원들의 특성, 공동체 활동.

**규칙** : 인간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인정되고 공인된 규범적 절차와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특히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접촉을 해나가는가 하는 것들의 내용들이 ‘규칙’을 구성한다. 예) 생태문화의 가치 구현을 위한 조례나 법, 공동체의 규율 및 운영방식.

**생활의 기술** : 인간이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편적 수단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생활의 기술’을 구성한다. 예) 생태문화적 가치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든 생활양식, 친환경 생활의 사례(가정, 사무실, 쇼핑 등).

## 4. 생태문화지표 개발

### 1) 생태문화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연구원 활동

#### ○ 시민연구원의 구성

- 구성 : 10인 내외,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을 위한 시민 워크숍(8.26) 참가자 중심으로 모집 및 구성
- 역할 : 시민 스스로 생태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순천다운 생태문화의 사례를 찾고, 일상의 작은 변화가 미래로 이어지는 씨앗 제안하기
- 운영 : 연구회 4~5회, 시민워크숍 결과 및 아이디어 분석, 지표개발을 위한 조사와 내용 공유, 생태문화지표 항목 초안 작성, 토론을 통한 수정 보완, 문화도시 예비사업과 연계한 시범적용, 평가 및 연구결과 공유회

#### ○ 시민연구원 참가자 : 18명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정은	문화꿈지락 이야기현상소	안정아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학수	(사)순천만생태관광협의회	이유나	별스런협동조합
김현주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조봉숙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남창우	순천로컬푸드(주)	허경희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설희	별스런협동조합	김인철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안영선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정명옥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양지현	별스런협동조합	이태경	순천문화도시센터
양진아	유익한상점	이애재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이민혜	유익한상점	임이경	순천YMCA

※ 참여단체 : 문화꿈지락 이야기현상소, (사)순천만생태관광협의회,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로컬푸드(주), 별스런협동조합,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유익한상점, 순천YMCA,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순천문화도시센터 등

○ 시민연구원 운영내용

- (1차 / 09.17)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관련 주요개념 정리, 생태문화의 구성요소(5가지 : 공간, 생활의 기술, 가치, 규칙, 공동체) 도출
- (2차 / 09.30) 시민아이디어 분석, 5가지 구성요소별로 생태문화 내용을 구분하고 빈도 및 중요도 측정
- (3차 / 10.07) 생태문화 구성요소별 지표초안으로서 질문 만들기와 공유, 토론
- (4차 / 10.22) 시민연구원간 교차검증 및 토론, 수정보완
- (5차 / 팀별) 구성요소별 2인 1조로 구성 논의. 팀별 정교화 작업 수행
- (6차 / 11.08) 각 구성요소별 질문지 취합 및 검토회의
- (자문회의 / 11.24) 문화도시 시민리더와 시민연구원의 생태문화지표 초안 검토 및 자문
- (시민공유회 / 12.09) <생태문화지표 시민공유회>와 <용기 내는 시민 100인 클럽> 워크숍에서 생태문화지표 개발 논리 및 과정 공유



<그림 4> 시민연구원 활동(1차~6차) 모습

- 생태문화에 대한 시민아이디어 구성요소별 중요도 순위
  - 생태문화의 구성요소별로 시민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분류하기
  - 시민연구원 개인별로 분류하고 취합한 후 구성요소별 중복단어의 빈도를 측정으로 누적빈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기
  - 생태문화 구성요소별 선택 누적빈도 결과

구성요소	시민아이디어	누적 빈도
가치	시민의식	13
	공존과 공생	10
	인식의 변화 / 타생명체에 대한 관용	9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순천 / 풍부한 생태자원 / 교육	8
	생태문화 감수성	7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시민이 많은 도시 / 경계에 꽃이 피어야 /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 / 생태적인 삶 / 생태문화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	6
	개발보다는 보전 / 여유로운 삶 / 공존의 삶 /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 / 소양을 갖춘 사람들 : 순천만을 지킨 사람들	5
	기부문화 / 두꺼비 로드킬 방지 활동 / 함께하는 것 / 자연과 인간의 관계 / 생태문화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 / 이질적인 요소간의 융합 / 불편함을 감수하는 검약의 삶	4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 환경교육 / 다양한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 / 생태적 삶을 실천한 농민 : 고 한원식 선생, 박귀심 선생 / 대표 생태문화페스티벌 보유 / 걷기좋은도시 / 생활문화 /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공동노력 / 개발보다는 보전, 아파트 건설 더 이상은 없다 선언	3
	정책의 연속성 / 문학작가 : 곽재구, 김승옥, 정채봉 등 / 일상 속 생태문화: 캠페인 / 생태문화 전문직 공무원 / 소통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채식 / 꽃심기 / 1회용품 안쓰는 시민 / 생태문화적 소양을 갖춘 시민 / 인근도시와 협력하는 도시 / 생태문화활동가 / 플로깅족 / 비닐포장 거부하는 사람들 / NO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가정 / 환경단체 / 다양한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	2
길고양이 급식소 / 누구나 쉽게 저절로 정리하게 만드는 쓰레기통 / 시민 정신을 담은 생태적인 삶 /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 / 홍보와 공유 / 쉬운 용어사용과 스토리텔링 / 협치 / 생태문화를 경험하는 공간과 기회가 많다 / 도심 속 곳곳이 생태교실 / 생활문화 콘텐츠화 / 법과 조례의 뒷받침	1	

구성요소	시민아이디어	누적 빈도
공간	누구나 이용가능한 상설공연장 문화공유공간 / 플라스틱 방앗간 / 기적의 도서관 / 뿌리깊은 박물관 / 정원이 많다 / 차없는 거리	10
	활동가들의 공간 / 제로웨이스트 거리 / 생태문화 실천공간 확산(텀블러 세척기 읍면동 설치) / 도서관의 도시 / 정자나무(노거수)	9
	생태문화를 경험하는 공간과 기회가 많다 / 도심 속 곳곳이 생태교실 / 들어가지 말라는 뜻말이 없는 공원 / 신규건축물 태양광에너지 설치 장려	7
	노플라스틱 카페 / 걷기좋은도시 / 용기내는 상점 / 페티병 수거함(국가정원내 네프론)	6
	길고양이 급식소 /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가 좋은 도시	5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순천 / 아파트 건설 더 이상은 없다 선언 / 차선하나가 자전거도로 / 건물 에너지 등급제 시행 / 누구나 쉽게 저절로 정리하게 만드는 쓰레기통 / 풍부한 생태자원 / 경계에 꽃이 피어야	4
	공동체가 살아있는 동네문화 : 마을회관 / 도시시설의 공동체 관리	3
	생태문화 전문직 공무원 / 우유팩 재활용 프로젝트 '밀크로드' /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생활환경 정책 구축 / 인근도시와 협력하는 도시 / 마을 단위의 에너지와 쓰레기 문제 해결 / 꽃심기	2
	생태적인 삶 / 자연과 인간의 관계 / 이질적인 요소간의 융합 / 공존의 삶 / sns소통왕 관리자 / 일상 속 생태문화: 캠페인 / 대중교통 이용하기 / 채식 / 개발보단 보전 / 쓰레기 없는 푸드아트페스티벌 / 대표생태문화페스티벌 보유 / 집 주변에 있는 작은 도서관 /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유 공간 / 마을의 쉼터 / 그린축 /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시민이 많은 도시	1

구성요소	시민아이디어	누적 빈도
공동체	생태문화적 소양을 갖춘 시민 ex) 순천만을 지킨 사람들, 플로깅족, 비닐포장 거부하는 사람들 / 1회용품 안쓰는 시민 /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사람들 / No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사람들 / 다외용기를 사용하는 업체	19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공동의 노력 ex) 마을가꾸기와 정원, 텃밭을 가꾸는 아버지 세대 / 마을 정원	14
	생활문화동호인들의 거버넌스 / 환경단체 ex)환경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 삼산초등학교 /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	9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	8
	일상 속 생태문화 : 캠페인 ex) 대중교통이용, 채식, 꽃심기(경계에 꽃이 피어야) / 문화작가 ex) 곽재구, 김승옥,정 채봉 등 / 생태문화, 생태문화감수성, 생활문화콘텐츠화 / 시민의 자발적 참여, 시민의자발적인노력 / SNS소통왕 관리자, 홍보와 공유 / 공동체가 살아있는 동네문화 ex)마을회관	6
	시민의식 / 함께하는 것 / 마을 단위의 에너지와 쓰레기 문제 해결 / 협치 / 도시시설의 공동체 관리 / 그린네트워크, 그린축 각 마을의 '또라이'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 /NO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가정 / 자원순환을실천하는개인 및 가정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농민 ex)고한원식선생, 박귀심선생 / 인근도시와 협력하는 도시 / 생각의 전환	5
	자연과 인간의 관계 / 살아있는 순천 / 두꺼비 로드킬 방지 활동 / 행정지원과 거버넌스	4
	법과 조례의 뒷받침, 조례제정	3
	공존의 삶 / 여유로운 삶 / 쉬운 용어 사용과 스토리텔링	2
빨대혁명 / 우유팩 재활용 프로젝트 '밀크로드' / 도시농부 / 생태문화 전문직 공무원 / 누구나 쉽게 저절로 정리하게 만드는 쓰레기통 / 길고양이 급식소 / 용기내는 상점 / 대표 생태문화페스티벌 보유 / 정원이 많다 / 기부문화 ex)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시민이 많은 도시	1	

구성요소	시민아이디어	누적 빈도
규칙	시민중심의 행정 / 로컬문화 지원정책	9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 / 탄소저감 실천 정책 / 탄소세부여	8
	생태문화지수가 조례(생태도시조례)에 들어가기 /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생활환경 정책 구축	7
	쓰레기 없는 푸드아트페스티벌 / 지속적인 환경교육	6
	건물 에너지 등급제 시행 / 신규 건축물 태양광 에너지 설치 장려(의무화) / 기존 건물의 설치유도를 위한 파격적인 행정지원 / 쉬운 용어사용과 스토리텔링	5
	행정지원과 거버넌스 / 정책의 연속성 /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 / 다양한 생태문화 교육 프로그램 / 생활문화 콘텐츠화 / 차선 하나가 자전거도로 / 홍보와 공유	4
	생태문화 전문직 공무원 / 법과 조례의 뒷받침 / 개발보다는 보전 /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공동노력	3
	도심 속 폐기물처리장 /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 / 도시시설의 공동체 관리 / 들어가지 말라는 뜻말이 없는 공원 / 순환자원로봇 네프론 (국가정원, 업사이클링센터) / 그린네트워크, 그린축	2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 시민의식 / 불편함을 감수하는 검약의 삶 / 분리 배출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 선순환 도시로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조례 제정 / 협치 /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 풍부한 생태자원 / 아파트 건설 더 이상은 없다 선언 / 마을 단위의 에너지와 쓰레기 문제 해결 / 대표 생태문화페스티벌 보유 / 길고양이 급식소 / 두꺼비 로드킬 방지 활동 / 빨대혁명(혁명정신에서 진행되는 친환경빨대 사용 체험단) / 적절한 소비 / 이질적인 요소간의 융합 / 친환경 기념품 / 순천형친환경 키트 /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가 좋은 도시	1	

구성요소	시민아이디어	누적 빈도
생활의 기술	적정한 소비 / 친환경 기념품	8
	순천형 친환경 키트 / 빨대혁명(혁명정신이 진행하는 친환경빨대사용 프로젝트)	7
	우유팩 재활용 프로젝트 ‘밀크로드’/ 순천형생태 문화 교육 프로 그램 및 자원순환 교육 확산	6
	생활문화 / 불편함을 감수하는 검약의 삶 / 생태문화 소양을 갖춘 사람들 : 순천만을 지킨 사람들	5
	친환경적인 생활문화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기부문화 / 생태적인 삶 / 캠페인 / 1회용품 안쓰는 시민	4
	누구나 쉽게 저절로 정리하게 만드는 쓰레기통 / 채식 / 꽃심기 NO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가정 / 일상 속 생태문화 / 다양한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 / 이질적인 요소간의 융합 / 시민의 자발적 참여 / 생태문화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 / 각 마을의 ‘또라이’ / 대표 생태문화페스티벌 보유 /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 / 여유로운 삶	3
	생활문화 콘텐츠화 /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가 좋은 도시 / 생태문화적 소양을 갖춘 시민 / 용기내는 상점 / 플로깅족 / 생태문화활동가 / 비닐포장 거부하는 사람들 / 생태적 삶을 실천한 농민 : 고 한원식 선생, 박귀심 선생 / SNS소통왕 관리자 / 환경교육 / 쉬운 용어사용과 스토리텔링 / 풍부한 생태자원	2
	자연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공동노력 / 홍보와 공유 / 마을가꾸기와 정원 / 텃밭을 가꾸는 아버지 세대 / 인식의 변화 / 공존의 삶 / 차선 하나가 자전거도로 / 아파트 건설 더 이상은 없다 선언	1

## 2) 순천형 생태문화지표 측정 설문지 프로토타입 개발

### ○ 지표설계 및 구성

- 생태문화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생태문화에 대한 과거 수요, 현재 수요, 미래(잠재) 수요로 구성
- (과거 수요) 생태문화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체험, 참여 등에 대한 실태 파악
- (현재 수요) 생태문화에 대한 현재의 인식 / 구체적 이용 / 참여
- (미래 수요) 생태문화에 대한 미래의 선호하는 방향 / 구성요소별 잠재적 의지, 참여

### <표> 지표 구성

구분 (지표수)	과거 수요 (9)	현재 수요 (27)	미래 수요 (20)
생태문화 인식	-	· 문화도시 인지도와 생태문화에 대한 이해(2) · 만족도(생활 / 정주·여가·문화 / 행정)(3) · 관심도(일상의 삶 속에서)(1)	· 생태문화에 대한 인식도(잠재욕구)(11) : 공동체(3), 가치(4), 생활의 기술(1), 공간(1), 규칙(2)
구성요소별 실태	· 생애주기별 생태문화 경험(1) · 가치(1) · 공동체(3) · 생활의 기술(3) · 공간(1)	· 공동체(4) · 생활의 기술(5) · 가치(4) · 공간(2) · 규칙(6)	· 공동체(3) · 생활의 기술(3) · 가치(1) · 공간(1)
응답자 특성	· 거주지(1), 성별(1), 연령별(1), 직업(1)		

○ 생태문화지표 세부항목

- 생태문화에 대한 인식

구분	측정요소	질문	보기
생태문화에 대한 인식	생활만족도	현재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점 척도
	정주·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	현재 정주·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행정에 대한 만족도	현재 순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생활관심사	<p>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순서대로 2순위까지 기재해 주십시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취직·창업·이직·승진</li> <li>2. 재테크    3. 학업·진학·졸업</li> <li>4. 교재·결혼·재혼</li> <li>5. 육아 및 자녀교육    6. 자기 수양 및 계발</li> <li>7. 여가 및 문화활동 경험</li> <li>8.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li> <li>9. 신체적 건강·재활 회복</li> <li>10. 대인관계(가족·친구·동료 등)</li> <li>11. 직장생활과 일</li> <li>12. 기타(내용 기재:                    )</li> </ol>	1,2순위 응답
	문화도시 인지도	귀하께서는 ‘생태문화도시’라는 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익숙한 말이다.</li> <li>2. 익숙하지 않지만 들어 본 적이 있는 말이다.</li> <li>3. 오늘 처음 듣는 말이다.</li> </ol>
	생태문화에 대한 이해	귀하께서 아래의 예시 중 ‘생태문화’로 생각되거나 판단되는 사례들을 모두 ○	복수응답

	<p>표시해 주십시오.</p> <p>1) 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2) 업동저수지 두꺼비 보호를 위한 캠페인 참여 3) 나눔을 권장하는 권분운동과 권분가게 4) 외출할 때 텀블러 챙기기 5)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쓸까말까 주저하는 마음 6) 길을 가다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기 7)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열리는 음악회나 전시회 8) 골목길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 9) 수업으로 동천 물가에서 다슬기를 관찰하고 공부하는 마을교육 10)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배출 하기 11) 바닷가 와온에서 만나는 움직이는 와온책방 12)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13) 동네 모퉁이에 있는 ‘한평정원’ 가꾸기 14) ‘아름다운 가게’에 안입는 옷 기부하기 16) 시민 누구나 사무실로 회의실로 모임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17) 유적지나 기념물 같은 유형 문화재 18) 태양광 판넬이 지붕마다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19)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하기 20) 역사문화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21)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에 투명페트병과 캔을 투입해 포인트 적립하기</p>	
--	---	--

- 미래(잠재) 수요 지표 : 생태문화 구성요소로 구분한 5가지 가치와 공간, 공동체, 규칙, 생활의 기술 영역별로 지표 설정

구분		설문항목
구성요소	지표	
가치	생태감수성	나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환경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려 한다
공동체	취향	나는 나에게 맞는 문화예술활동이 무엇인지 찾고 싶다
생활의 기술	관심, 지식	나는 평소에 친환경생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배우려 한다
가치	이해	나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려 한다
공간	행복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공동체	자아존중감	나는 평소 내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려고 한다
가치	참여	나는 생태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규칙	공감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입장을 잘 이해하려 한다
규칙	소통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이고 집중하려 한다
가치	관용	나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대하려고 한다
공동체	친밀감	나는 대화나 고민을 자주 나누는 가족이나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 생애주기별 생태문화 경험 :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생애에 걸쳐 생태문화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경험의 유무 파악

생애주기	질문	보기
유아·아동기(5세~13세) 단계 중고등생·청소년기(14세~19세) 단계 청년기(20세~39세) 단계 중장년기(40세~64세) 단계 노년기(65세 이상) 단계	귀하께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태, 환경, 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교육, 체험, 캠페인 등에 참여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한번도 없음 2. 몇 번 경험 있음 3. 자주 경험 있음

- 생태문화에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의지 확인

구분	질문	보기
공동체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하나 이상의 모임이나 동아리, 자원봉사, 단체 등 자발적인 공동체에서 활동	과거 경험, 현재 현황, 미래 의향에 대한 응답
공동체	환경이나 문화, 예술단체, 시민단체에 후원 또는 기부	
생활의 기술	카페를 이용하거나 음식을 구매할 때 다회용기(텀블러, 밀폐용기 등)를 챙겨 다닌 경험	
가치	길냥이, 두꺼비, 흑두루미, 은어, 가로수 등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위한 활동	
생활의 기술	차를 이용하기 보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	
생활의 기술	폐지나 빈병 수집, 물품교환, 재활용 등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	
공동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순천의 환경, 경제, 문화, 정치 등 지역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	
공간	집이나 직장(일터)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휴식이나 힐링할 수 있는 자연공간이나 공유시설	
생활의 기술	순천을 즐길 수 있는 명소나 맛집, 우리동네 핫플 등 나만의 목록이 있다	5점 척도
생활의 기술	에너지도 아끼고, 자원도 절약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가치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을 위해 적절한 소비를 한다	
가치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우선한다	

- 생태문화도시 정책관련

구분	질문	보기
규칙	귀하께서는 '생태문화도시'를 뒷받침하는 조례인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또는 '생태도시 기본조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 자세히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잘은 모르지만 들어 본 적이 있다 4. 들어본 적이 없다
공간	순천시에는 친환경생활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도심 곳곳에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한 공간이나 시설 중에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곳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복수응답
가치	시의 전체적인 정책의 무게중심은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에 적극적이다	5점 척도
규칙	시의 정책 추진과정은 투명하고, 친절하다	5점 척도
공동체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 업무처리가 빠르고 지역사회와 유대 활동에 노력한다	5점 척도
규칙	시의 행사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5점 척도
규칙	생태교육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점 척도
규칙	친환경생활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5점 척도
규칙	프로그램 이용 안내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5점 척도

○ 5점 척도 문항 해석의 기준

- 설문 문항 중 5점 척도 문항의 평균에 대한 해석 기준은 아래와 같음

평균값 구간	평균값의 의미
4.5점 이상	매우 높음
3.8점 이상 ~4.4점 미만	높음
3.4점 이상 ~3.7점 미만	보통을 상회하는
3.0점 이상 ~3.3점 미만	보통, 의견이 엇갈리는
2.5점 이상 ~2.9점 미만	낮음
2.4점 이하	매우 낮음

## 5. 생태문화지표 적용 및 조사결과

###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순천시민 255명 참여
- 조사기간
  - 2021년 12월 9일~12월 14일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및 개별 면접 설문조사 병행 실시

###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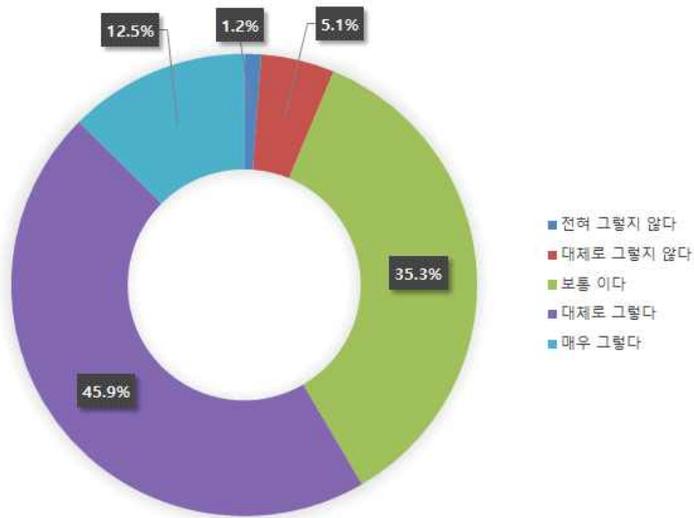
- 응답자 특성
  - 도시거주자가 80.0%, 교외지역 거주자가 20.0%로 도시 거주자 응답비율이 높았음.
  - 성별은 여성이 71.8%, 남성은 28.2%으로 여성 비율이 높음. 연령대는 10대 응답자는 없었고, 20대의 응답비율이 10.6%로 40대와 50대의 절반이하로 적었음.
  - 조사 분석을 위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비례 대비 성별 /연령 별/지역별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함.

구분		사례수	빈도
전체		(255)	100.0
지역	도시	(204)	80.0
	교외	(51)	20.0
성별	여성	(183)	71.8
	남성	(72)	28.2
연령대	10대	-	0.0
	20대	(27)	10.6

	30대	(51)	20.0
	40대	(64)	25.1
	50대	(68)	26.7
	60대	(39)	15.3
	70대 이상	(6)	2.4
직업	화이트칼라	(121)	47.5
	블루칼라	(16)	6.3
	자영업	(18)	7.1
	학생	(6)	2.4
	전업주부	(53)	20.8
	무직/기타	(41)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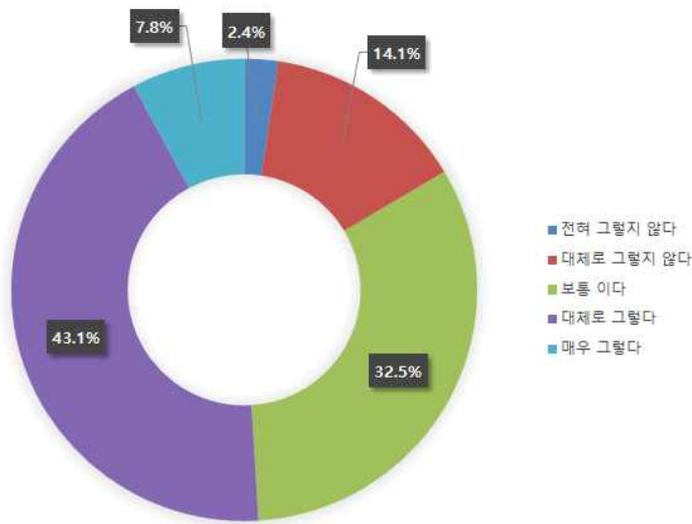
○ 현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 현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음” (12.5%)과 “대체로 높음” (45.9%)의 긍정적 응답이 58.4%, “보통” 은 35.3%, “매우 낮음” (1.2%)과 “대체로 낮음” (5.1%)의 부정적 응답은 6.3%로 나타남.
- 5점 척도 기준 평균 3.6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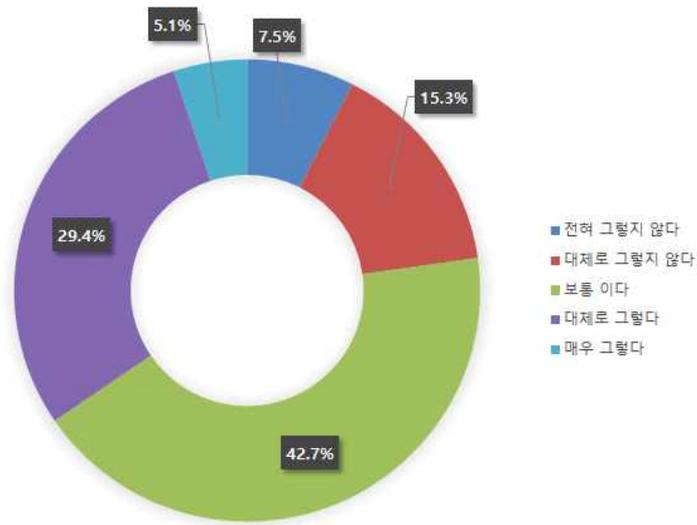
○ 정주·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

- 현 정주·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음” (7.8%)과 “대체로 높음” (43.1%)의 긍정적 응답이 51.0%, “보통” 은 32.5%, “매우 낮음” (2.4%)과 “대체로 낮음” (14.1%)의 부정적 응답은 16.5%로 나타남.
- 5점 척도 기준 평균 3.4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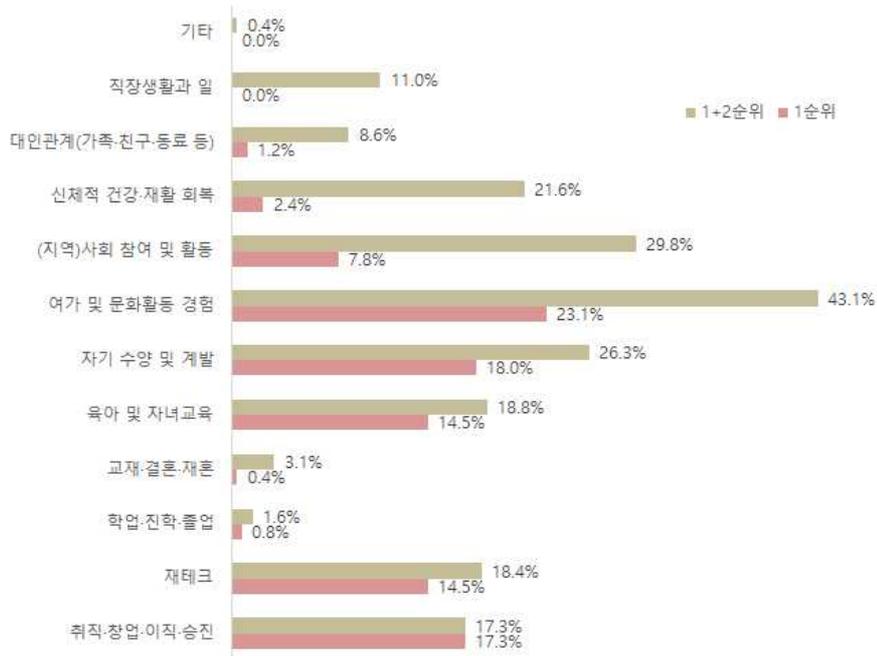
○ 순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

- 현 순천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음” (5.1%)과 “대체로 높음” (29.4%)의 긍정적 응답이 34.5%, “보통” 은 42.7%, “매우 낮음” (7.5%)과 “대체로 낮음” (15.3%)의 부정적 응답은 22.7%로 나타남.
- 5점 척도 기준 평균 3.1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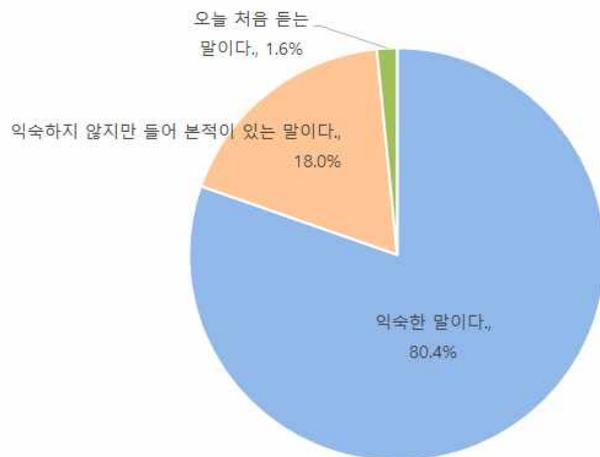
○ 일상의 삶 속에서 주된 관심사

- 주된 생활 관심사는 1순위 기준으로 “여가 및 문화활동 경험” (23.1%), “자기 수양 및 계발” (18.0%), “취직·창업·이직·승진” (17.3%), “재테크” (14.5%), “육아 및 자녀교육”(14.5%) 순으로 나타남
- 1+2순위 합산에서도 “여가 및 문화활동 경험” 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특이하게 1순위 기준에서는 낮았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는 29.8%로 두 번째로 크게 높아져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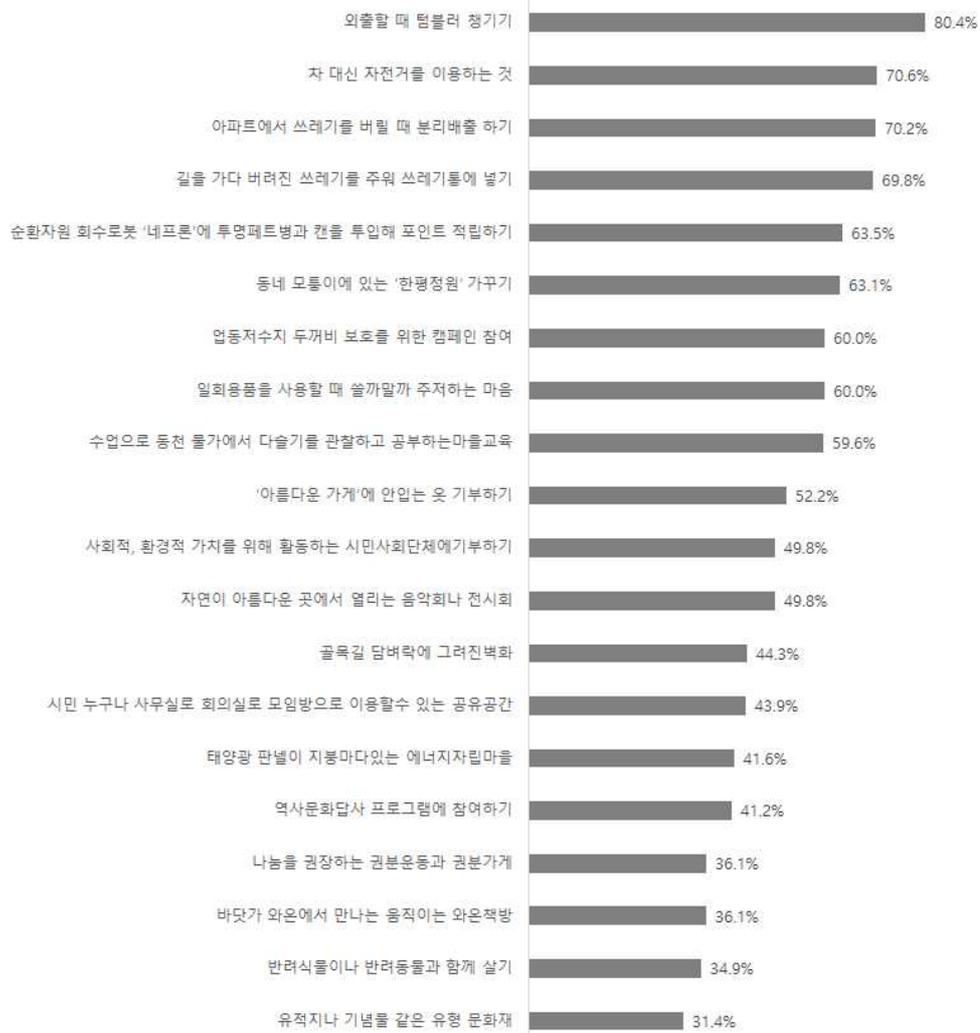
○ ‘생태문화도시’에 대한 인지도

- 생태문화도시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익숙한 말이다” (80.4%)와 “익숙하진 않지만 들어 본 적이 있는 말이다” (18.0%)를 합해서 98.4%로 이며, “오늘 처음 듣는 말이다”는 1.6%로 나타남. 생태문화도시이란 용어를 익숙하게 인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생태문화에 대한 이해

- 일상의 삶 속에서 생태문화로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질의에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선택한 문항은 “외출할 때 텀블러 챙기기” (80.4%), “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70.6%),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배출 하기” (70.2%), “길을 가다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기” (69.8%),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 에 투명페트병과 캔을 투입해 포인트 적립하기” (63.5%), “동네 모퉁이에 있는 ‘한평정원’ 가꾸기” (63.1%), “업동저수지 두꺼비 보호를 위한 캠페인 참여” (60.0%),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쓸까말까 주저하는 마음” (60.0%), “수업으로 동천 물가에서 다슬기를 관찰하고 공부하는 마을교육” (59.6%), “ ‘아름다운 가게’ 에 안입는 옷 기부하기” (5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시민사회활동이나 공유 오피스, 에너지자립마을, 권분운동, 반려문화 등은 생태문화와는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이해한 것을 보임



○ 생태문화에 대한 잠재 욕구

구성요소	지표	내재적 요소
가치	생태감수성	3.5
공동체	취향	4.0
생활의 기술	관심, 지식	3.3
가치	이해	4.3

공간	행복	4.5
공동체	자아존중감	4.3
가치	참여	4.2
규칙	공감	4.1
규칙	소통	4.2
가치	관용	4.1
공동체	친밀감	3.9

- 행복감은 4.5점으로 매우 높고, 자아존중감, 이해와 자아존중감, 소통, 공감, 관용, 취향, 친밀감은 3.8점 이상으로 높은 반면, 가치의 생태감수성과 생활의 기술의 관심과 지식은 보통 수준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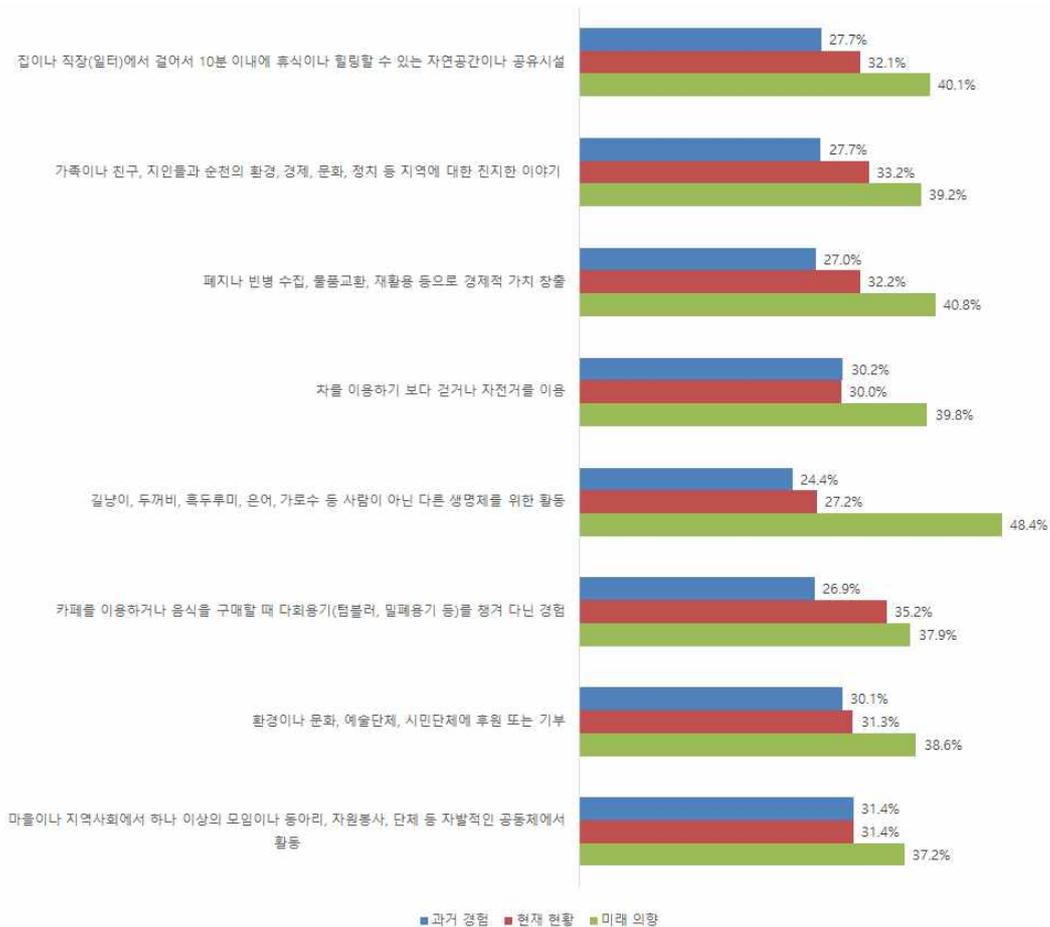
○ 생애주기별 생태문화 경험

- 청년기와 중장년기(20세~64세)에서 생태문화 경험률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유아·아동기(5세~13세) 단계와 중고등생·청소년기(14세~19세) 단계의 경험률은 청년기나 중장년기에 비해 낮았고, “한번도 경험 없음” 이 각각 30.8%, 23.8%으로 높음.

생애주기	한번도 경험 없음	몇 번 경험 있음	자주 경험 있음	경험률 (자주 경험 있음 + 몇 번 경험 있음)
유아·아동기(5세~13세) 단계	30.8%	44.6%	24.6%	69.2%
중고등생·청소년기(14세~19세) 단계	23.8%	56.5%	19.7%	76.2%
청년기(20세~39세) 단계	9.1%	64.7%	26.3%	90.9%
중장년기(40세~64세) 단계	4.0%	43.7%	52.3%	96.0%
노년기(65세 이상) 단계	22.7%	34.1%	43.2%	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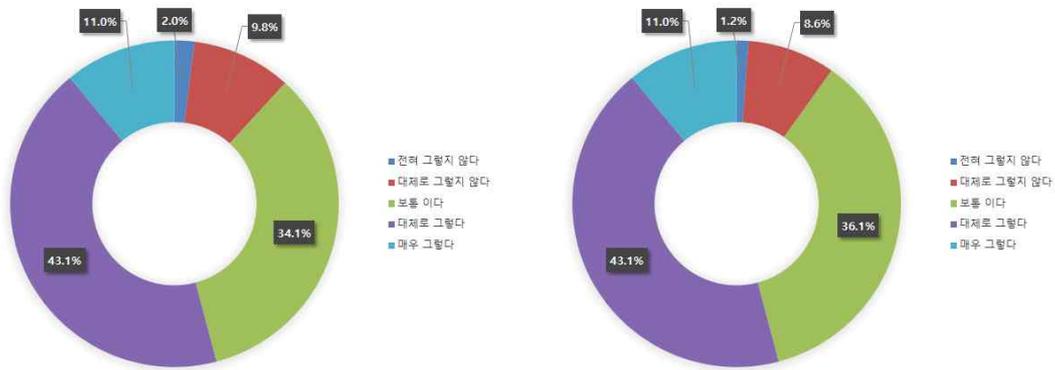
○ 생태문화와 관련한 일상의 삶 속에서 참여의 경험

- 생태문화와 관련한 과거의 경험은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하나 이상의 모임이나 동아리, 자원봉사, 단체 등 자발적인 공동체에서 활동” (31.4%), “차를 이용하기 보다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 (30.2%), “환경이나 문화, 예술단체, 시민단체에 후원 또는 기부” (30.1%) 순으로 나타남.
- 미래 의향은 “길냥이, 두꺼비, 흑두루미, 은어, 가로수 등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위한 활동” (48.4%), “폐지나 빈병 수집, 물품교환, 재활용 등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 (40.8%), “집이나 직장(일터)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휴식이나 힐링할 수 있는 자연공간이나 공유시설” (40.1%) 순으로 나타남.
- 생태문화와 관련한 일상의 경험이나 프로그램 참여, 활동, 의향의 특징은 현재와 미래에는 적극적인 참여 및 참여의향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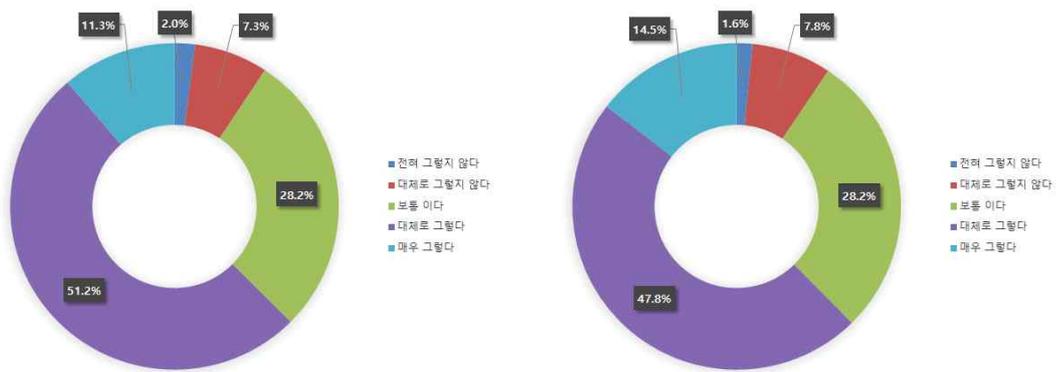


○ 생태문화의 실천과 확산

- 생태문화의 실천과 관련 있는 생활의 기술 요소는 “매우 높음” (11.0%)과 “대체로 높음” (43.1%)의 긍정적 응답이 54.1%, “보통” 은 36.1%, “매우 낮음” (1.2%)과 “대체로 낮음” (8.6%)의 부정적 응답은 9.8%로 나타남
- 생활의 기술 요소는 각각 5점 척도 기준 평균 3.5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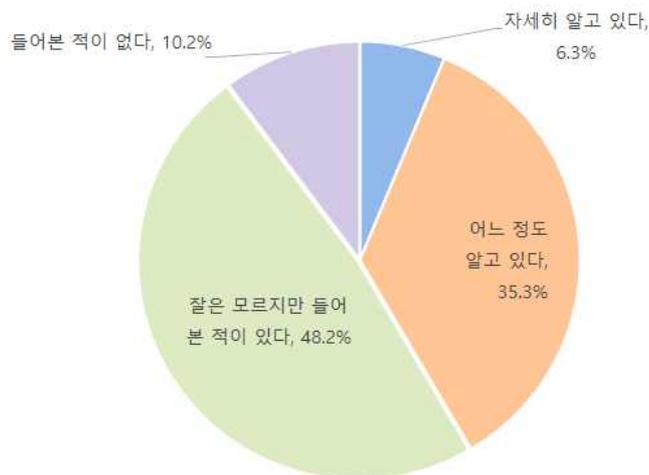


- 생태문화의 실천과 관련 있는 걱정 소비와 같은 가치 요소는 “매우 높음” (11.0%)과 “대체로 높음” (49.8%)의 긍정적 응답이 60.8%, “보통” 은 27.5%, “매우 낮음” (2.0%)과 “대체로 낮음” (7.1%)의 부정적 응답은 9.0%로 나타남
- 친환경적인 행동과 관련해서는 “매우 높음” (14.5%)과 “대체로 높음” (47.8%)의 긍정적 응답이 62.4%, “보통” 은 28.2%, “매우 낮음” (1.6%)과 “대체로 낮음” (7.8%)의 부정적 응답은 9.4%로 나타남
- 가치 요소는 각각 5점 척도 기준 평균 3.7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의 실천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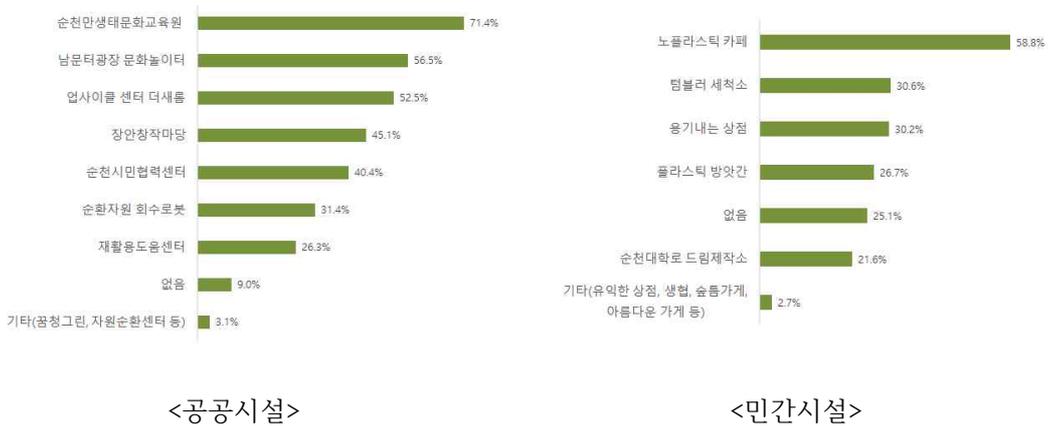
○ ‘생태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인지도

- 생태문화도시를 뒷받침하는 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자세히 알고 있다” (6.3%)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5.3%), “잘은 모르지만 들어 본 적이 있다” (48.2%)를 합해서 89.8%이며, “들어본 적이 없다” 는 10.2%로 나타남. 조례를 인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생태문화 실천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제공 거점에 대한 인지도

- 공공시설 중에서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71.4%), “남문터광장 문화놀이터” (56.5%), “업사이클센터 더새롭” (52.5%) 순으로 나타남.
- 민간시설 중에서는 “노플라스틱 카페” (58.8%), “텀블러 세척소” (30.6%), “용기내는 상점” (30.2%) 순으로 나타남.
-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음



○ 순천시의 생태문화도시 정책평가

- 순천시의 생태문화도시 정책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3.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순천시의 생태문화도시 정책 평가 중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은 “시의 행사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로 2.9의 낮은 수준이었음

내용	5점 척도 기준 평균
전체	3.1
시의 전체적인 정책의 무게중심은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에 적극적이다	3.1
시의 정책 추진과정은 투명하고, 친절하다	3.0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 업무처리가 빠르고 지역사회와 유대활동에 노력한다	3.0
시의 행사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2.9
생태교육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1
친환경생활과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3
프로그램 이용 안내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3.0

## 참고문헌

- 문화관광부.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연구. 서울 : 문화관광부, 2013.
- 문화관광부. 국민문화지수 개발연구 종합보고서.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2.
- 유태용.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 학연문화사, 1999.
- 진종현, 최희선, 신지영, 정문수.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의 방향설정 및 추진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부록.

<p><b>순천형 생태문화지표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지</b></p>	<p>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p>
--------------------------------------	--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와 순천시문화도시센터는 우리시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시민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순천형 생태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문화도시 순천은 어디만큼 왔는지. 시민들의 일상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성장해 가고 있는 생태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 수요를 파악하고자 [생태문화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생태문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고 개선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문화를 좀더 보다 가까이 접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사항은 순천형 생태문화도시를 만들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활용되며,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절대 비밀이 보장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성의껏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12.

- 조사주관 : 순천시 • 순천시문화도시센터
- 조사수행 :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응답자 정보**

거주 지역	<input type="checkbox"/> 승주읍 <input type="checkbox"/> 주암면 <input type="checkbox"/> 송광면 <input type="checkbox"/> 외서면 <input type="checkbox"/> 낙안면 <input type="checkbox"/> 별량면 <input type="checkbox"/> 상사면 <input type="checkbox"/> 해룡면(상삼리, 신대리 거주자) <input type="checkbox"/> 해룡면 <input type="checkbox"/> 서 면 <input type="checkbox"/> 황전면 <input type="checkbox"/> 월등면 <input type="checkbox"/> 향 동 <input type="checkbox"/> 매곡동 <input type="checkbox"/> 삼산동 <input type="checkbox"/> 조곡동 <input type="checkbox"/> 덕연동 <input type="checkbox"/> 풍덕동 <input type="checkbox"/> 남제동 <input type="checkbox"/> 저전동 <input type="checkbox"/> 장천동 <input type="checkbox"/> 중앙동 <input type="checkbox"/> 도사동 <input type="checkbox"/> 왕조1동 <input type="checkbox"/> 왕조2동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성
연령	<input type="checkbox"/> 10대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input type="checkbox"/> 70대 이상

## 생태문화에 대한 인식

문1.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재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현재 정주·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현재 순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문2.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순서대로

2순위까지 기재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취직·창업·이직·승진
2. 재테크
3. 학업·진학·졸업
4. 교재·결혼·재혼
5. 육아 및 자녀교육
6. 자기 수양 및 계발
7. 여가 및 문화활동 경험
8.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
9. 신체적 건강·재활 회복
10. 대인관계(가족·친구·동료 등)
11. 직장생활과 일
12. 기타(내용 기재: )

아래의 제시문을 읽어 보신 후에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생태문화도시는 인간과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도시이며, 자연처럼 생태적 원리로 작동되고, 다양성과 관계에 의존한 협치와 공유, 느림의 속도를 인정하는 도시,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시민의 일상 삶 속에서 발견되는 도시입니다.

문3. 귀하께서는 ‘생태문화도시’ 라는 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 익숙한 말이다.
2. 익숙하지 않지만 들어 본 적이 있는 말이다.
3. 오늘 처음 듣는 말이다.

문3-1. 귀하께서 아래의 예시 중 ‘생태문화’로 생각되거나 판단되는 사례들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 1. 업동저수지 두꺼비 보호를 위한 캠페인 참여
- 1. 나눔을 권장하는 권분운동과 권분가게
- 1. 외출할 때 텀블러 챙기기
- 1.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쓸까말까 주저하는 마음
- 1. 길을 가다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기
- 1.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열리는 음악회나 전시회
- 1. 골목길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
- 1. 수업으로 동천 물가에서 다슬기를 관찰하고 공부하는 마을교육
- 1.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배출 하기
- 1. 바닷가 와온에서 만나는 움직이는 와온책방
- 1.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 1. 동네 모퉁이에 있는 ‘한평정원’ 가꾸기
- 1. ‘아름다운 가게’에 안입는 옷 기부하기
- 1. 시민 누구나 사무실로 회의실로 모임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 1. 유적지나 기념물 같은 유형 문화재
- 1. 태양광 판넬이 지붕마다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 1.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하기
- 1. 역사문화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 1.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에 투명페트병과 캔을 투입해 포인트 적립하기

문4. 귀하께서는 평소 아래의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환경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에게 맞는 문화예술활동이 무엇인지 찾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평소에 친환경생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탐색하고 배우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평소 내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생태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입장을 잘 이해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귀 기울이고 집중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대화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대화나 고민을 자주 나누는 가족이나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생태문화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정착하고 있는지 현재의 인식과 실태

문5. 귀하께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생태, 환경, 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교육, 체험, 캠페인 등에 참여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가 거처온 생애 단계별로 경험 여부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탐사, 갯벌탐사, 플로깅, 하천정화활동, 해양쓰레기줍기, 숲체험, 에너지의 날, 분리수거 캠페인, 환경교육 등)

\* 아직 생애 단계가 도래하지 않은 항목은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	한번도 경험 없음	몇 번 경험 있음	자주 경험 있음
유아·아동기(5세~13세) 단계	①	②	③
중고등생·청소년기(14세~19세) 단계	①	②	③
청년기(20세~39세) 단계	①	②	③
중장년기(40세~64세) 단계	①	②	③
노년기(65세 이상) 단계	①	②	③

문6. 귀하께서 과거(최근 5년 이내)와 현재(2021년)에 경험한, 그리고 향후(2022년 이후)에 희망 사항에 대해 **모두 ○표** 해주십시오.

내용	문6-1. 과거 경험	문6-2. 현재 현황	문6-3. 미래 의향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하나 이상의 모임이나 동아리, 자원봉사, 단체 등 자발적인 공동체에서 활동	1	1	1
환경이나 문화, 예술단체, 시민단체에 후원 또는 기부	2	2	2
카페를 이용하거나 음식을 구매할 때 다회용기(텀블러, 밀폐용기 등)를 챙겨 다닌 경험	3	3	3
길냥이, 두꺼비, 흑두루미, 은어, 가로수 등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를 위한 활동	4	4	4
차를 이용하기 보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	5	5	5
폐지나 빈병 수집, 물품교환, 재활용 등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	6	6	6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순천의 환경, 경제, 문화, 정치 등 지역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	7	7	7
집이나 직장(일터)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휴식이나 힐링할 수 있는 자연공간이나 공유시설	8	8	8

문7. 귀하께서는 평소 아래의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순천을 즐길 수 있는 명소나 맛집, 우리동네 핫플 등 나만의 목록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에너지도 아끼고, 자원도 절약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을 위해 적절한 소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우선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8. 귀하께서는 ‘생태문화도시’를 뒷받침하는 조례인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또는 ‘생태도시 기본조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 자세히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잘은 모르지만 들어 본 적이 있다  
4. 들어본 적이 없다

문9. 순천시에는 친환경생활과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도심 곳곳에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한 공간이나 시설 중에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곳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공공시설]

1. 업사이클 센터 더새롭    2.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3. 남문터광장 문화놀이터  
4. 장안창작마당    5. 순천시민협력센터    6. 순환자원 회수로봇  
7. 재활용도움센터    8. 기타:

[민간시설]

1. 노플라스틱 카페    2. 텀블러 세척소    3. 용기내는 상점  
4. 순천대학로 드림제작소    5. 플라스틱 방앗간    6. 기타 :

[없음] ( )

문10. 순천시의 생태문화도시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는 평소 아래의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시의 전체적인 정책의 무게중심은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에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시의 정책 추진과정은 투명하고,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어 업무처리가 빠르고 지역사회와 유대활동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시의 행사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진된다	①	②	③	④	⑤
생태교육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친환경생활과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이용 안내 및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생태문화지수·지표 개발'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발 행 일 2021.12.10.

발 행 처 순천문화도시센터

용역기관명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